

EBS, Quam Libet.

수능특강 윤리 by 마이뉴

1	다음은 무엇? ... 프랑스 혁명 이후 급진적인 변화에 제동을 걸고, 혁명 과정에서 권력을 상실한 왕과 귀족들이 과거의 질서를 옹호하는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게 됨에 따라 등장한 이데올로기	125p
2	누구? 있는 그대로의 것에 대한 전적인 거부, 즉 절대적 'non'을 신격화할 때마다 반항은 살인을 한다. 있는 그대로의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때, 즉 절대적 'oui'를 외칠 때마다 반항은 살인을 한다. ... 반항이 맹목적인 대담성으로 자라나 보편적인 살인을 결정할 정도의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. 절대에 대한 무절제가 이 정도에 이르면 이성인 광란이 되어 버리고 만다.	127p
3	누구? “군자가 베풀하는 것은 의(義)를 행하는 것이니 도가 행하여지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.”	126p
4	누구? “도대체 이론이 실천으로 완전히 옮겨질 수 있는가, 사물의 본성상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생각보다 진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?”	126p
5	OX ... 샌델은 자유주의적 인간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아를 ㉠'원자적 자아', ㉡'소속된 자아'로 보지 않고 ㉢'독립된 자아', ㉣'연고적 자아'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. 그에 의하면, ㉤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. 따라서 ㉥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공동체 속에서의 의무와 책임, 덕성의 실천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.	127p
6	누구? 아무리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국가는 민중에게 그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없다. 국가는 위로부터의 어떠한 간섭과 폭력이 없이 민중들이 자유롭게 자기 관리를 하도록 보장하지 못한다. 왜냐하면, 모든 국가는, 심지어 마르크스가 주장한 민중의 국가도, 그 본질에 있어서는 소수의 거만한 지식인들이 대중을 지배하는 기구일 뿐이기 때문이다.	132p